

1차산업 (양돈업) 의 요람, 백제고도 익산군

취재 : 곽삼섭 기자

무슨 작목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농사짓는 일(농업),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농민), 또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터전(농촌)은 어떤 모양으로 변하고 있고,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요즘 바로 농업·농촌·농민의 문

제가 붓물처럼 터져 있고, 무척 심각한 실정이다.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지난 25년간 연평균(전국) 44만명씩 무더기로 농촌을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다. 젊은이를 중심으로 일할 만한 사람이 대부분 떠나버린 농

촌지역은 노인마을로 바뀌어 저서 언젠가는 버리고 떠나야 할 땅으로 생기를 잃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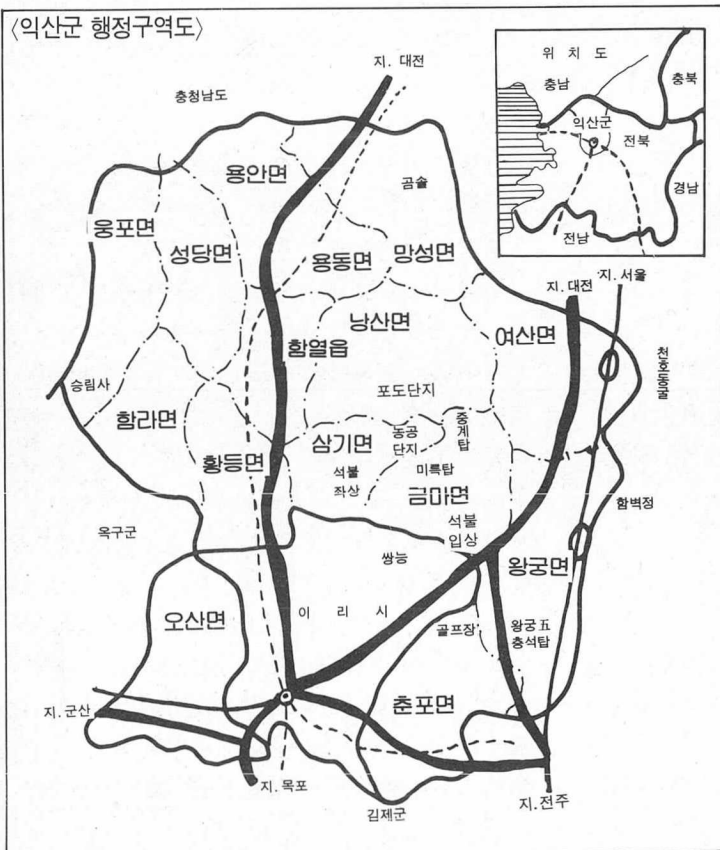
1차산업의 요람지인 익산군도 과연 이대로 좋은 것인가. 또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는 가운데 주체성을 찾기는 커녕, 한갓 빈 껍데기만 남지 않을지 선입관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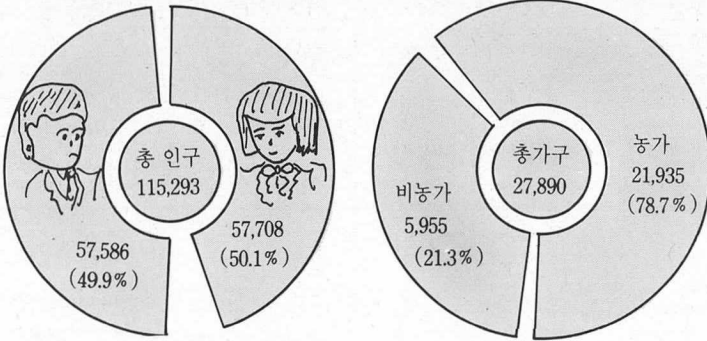
이조초(태종 13년)에 익산군이라 개칭

옛부터 취락이 형성되었던 백제 고도(古道) 익산군은 석기시대 유물들이 곳곳에서 발굴되어지고 있다. 고조선말 기증왕의 남하 정착설에 이어 삼국시대 백제말기의 궁도였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금마, 고려시대에는 익주로, 이조초(태종 13년)부터 익산군이라 개칭했다고 전한다.

그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1914년 3월 부군 폐합으로 익산군에 함열현·용안현과 여산군을 병합하여 1읍 17개면을 관할하기도 했다. 또 1947년에는 이리읍이 시로 승격되었고, 1963년에는 황화면이 충남 논산군으로, 1974년에는 복일면 일원

(익산군 행정구역도)





〈그림1〉 익산군 인구 및 가구분포도

이 이리시로 편입되었다고 한다. 1979년에는 함열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현재 1읍 14개면을 행정구역으로 관할하고 있다.

산세가 수려하고 토질이 비옥한 익산군은 전북도의 서북단에 위치하여 노령산맥의 지맥인 천호산과 미륵산이 동부에 머무르고, 서북부에 함라산 줄기가 이어져 남서로 향하는 구릉과 대소하천으로 비옥한 평원을 이루고 있다. 또 북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충남 논산군과 부여

군에, 서로는 옥구평야에 이어 서해에, 남으로는 만경강을 경계로 김제 평야에 인접한 이리시의 외곽지이다.

특히 서해안개발 배후지역으로서 기후까지 농사짓기에 알맞는 곳이며, 해마다 넓은 들과 마을에서 풍년의 격양가가 높기만한 고장이기도 하다. 총면적의 56%인 23,450ha의 비옥·광활한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철도, 고속도로, 국·지방도 등 교통망이 다양하다. 또 마한의

옛터이기도 하며, 찬란했던 백제불교문화의 상징이자 동양 최대의 석탑인 미륵사지 9층탑(국보 제11호)을 비롯하여 왕궁리 5층석탑(보물 제44호)등 36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금강 연안개발과 문화관광자원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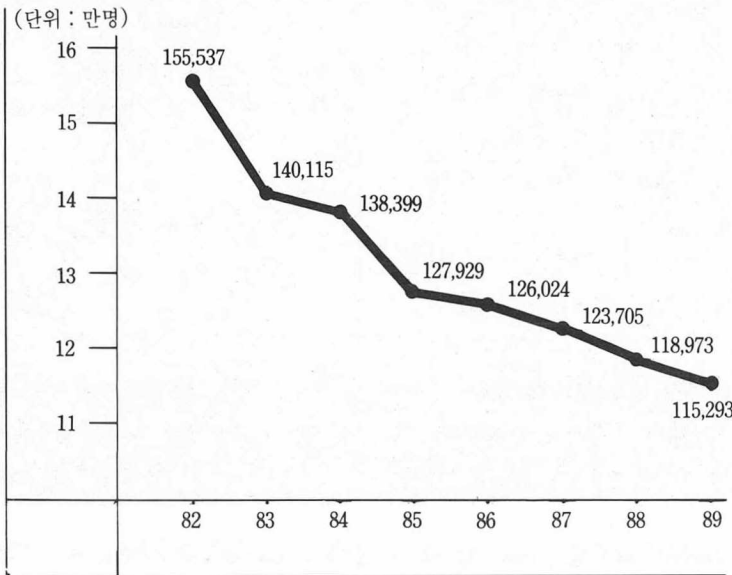
또한 양질의 화강암이 대량 산재되어 있어 전국에서 석재산업이 가장 번창한 곳으로 유명하다. 이 석재산업에서 연간 4백억원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석조예술 또한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호남선의 교통요충지, 사통오달(四通五達)되는 교통망 펼쳐져

호남선의 교통요충지임을 입증이나 하듯이 익산군의 교통망은 남북으로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리역을 기점으로 하는 전라선과 군산선이 남북으로 통과하며, 호남고속도로가 동부를 지나 금마진입로에 있고, 1번 국도와 23번 국도 및 10여개의 국·지방도 등이 전국 각지로 이을 수 있는 사통오달(四通五達)되는 편리한 교통망이 펼쳐져 있다.

읍면별 면적을 보면, 전라북도의 5.2%인 총면적 419.97km²중에서 왕궁면이 45.83km²으로 가장 넓고, 그 다음에는 여산면이 36.56km², 낭산면 35.34km², 응포면 33.14km² 등의 순이었으며, 함열읍은 17.70km²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익산군은 경지면적중에서 답(畓)의 비율이 높은 논농사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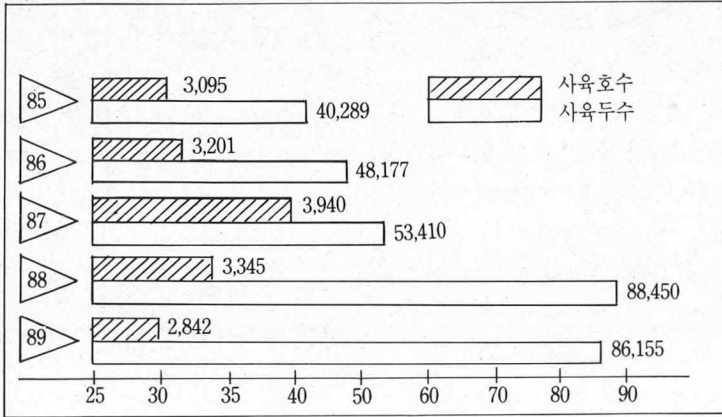
〈그림2〉 연도별 익산군 인구 및 가구변동 추이도

익산군의 양돈현황

〈표1〉 연도별 익산군 축종별 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현황

(단위: 호수, 두수·마리)

연도별	돼		지		한		우		유		우		닭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마리
85	3,095	40,289	6,279	17,163	110	969	5,102	611,205						
86	3,201	48,177	6,207	16,859	115	1,152	2,642	546,299						
87	3,940	53,410	5,251	13,682	111	1,308	1,714	834,279						
88	3,345	88,450	3,693	9,261	128	1,653	1,019	1,016,682						
89	2,842	86,155	3,089	7,871	124	1,837	424	1,204,903						



〈그림3〉 익산군 돼지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현황

지대라 할 수 있다. 총면적(419.97 km²)중에서 닭(畜)이 전체면적의 44%인 182.55km²이고, 그 다음 임야가 115.26km²(27%), 전(田)이 51.97km²(12%), 기타 70.20km²(17%)였다.

이와같은 여건속에서 익산군이 외형적 성장을 유지해 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저명한 인사에 의해 지켜온 지역이라기 보다는 군민의 노래속에 담긴 것처럼 「백제의 성왕, 순수한 미화속에서 향토의 재건과 산업 만민이 즐거워 하여 감정을 모다 일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 한 예로 가구 및 인구분포 현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89년도 익산군은 2만7천8백90가구에 인구는 전라북도의 5.4%인 11만5천2백93

'89년 인구는 11만5천2백93명(가구당 4.3명)

명으로서 가구당 4.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남자가 5만7천5백86명(49.9%), 여자가 5만7천7백8명(5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연도별로 인구 및 가구변동추이를 보면, 인구는 85년도의 12만7천9백29명보다 1만2천6백36명, 88년의 11만8천9백73명보다 3천6백80명이 각각 감소한 수치이다. 이와 더불어 가구수도 85년의 2만8천2백56가구, 87년의 2만8천1백83가구보다 3백66가구, 2백93가구가 각각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88

년 이후는 완만한 감소현상을 나타냈다.

또한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및 인구는 2만1천9백35농가에 10만3백18명이다. 전업농가는 1만6천3백93농가에 7만5천9백54명, 1종겸업농가는 4천36농가에 1만7천4백명, 2종겸업농가는 1천5백6농가에 6천9백64명인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따라서 익산군은 전라남북도의 어느 지역보다 양돈업의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꼬집어 말한다면, 익산군을 중심으로 전주 49.4km, 이리 16.9km, 군산 42.9km라는 소비시장과 인접해 있고 양돈업 발전을 위한 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양돈업 경영구조가 영세한 점, 다시말하면 전체 양돈농가중에서 20두미만 사육농가의 비율이 약 70%를 웃돌고 있다는 점, 또 정부의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이 지역의 유리한 외부시장 여건과 높은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양돈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89년 현재 돼지사육두수는 8만6천1백55두

익산군의 돼지사육호수 및 사육두수를 보면 양돈업의 추이를 잘 알 수 있다. 89년 현재 2천8백42호에 8만6천1백55두로 집계되어 있으며, 이것은 88년의 3천3백45호에 8만8천4백50두보다는 5백3호, 두수로는 2천2백95두가 줄어든 통계 수치이

〈표2〉 읍·면별 돼지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현황('89년말 현재)

(단위 : 호수, 두수)

읍면별 구분	함열면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용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용동면
돼지사육 호 수	155	157	211	123	92	116	173	170	191	69	77	943	139	101	125
돼지사육 두 수	5,629	2,883	1,715	1,552	2,497	3,530	2,599	2,763	3,627	1,341	3,219	47,657	2,771	1,463	2,909

다. 또 87년의 3천9백40호보다는 1천98호가 줄어든 반면, 사육두수면에서는 5만3천4백10두보다 3만2천7백45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 사육호수를 보면, 왕궁면이 9백43호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황등면이 2백11호, 망성면 1백91호, 용안면 1백73호, 낭산면 1백70호, 오산면 1백57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육두수도 왕궁면이 4만7천6백57두로 가장 많은 두수를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함열읍이 5천6백29두, 망성면 3천6백27두, 성당면 3천5백30두, 금마면 3천2백19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사육규모는 20두이하가 1천7백51호, 20~29두 2백40호, 30~49두 3백8호, 50~99두 3백12호, 100~299두 2백19호, 300~499두 10호, 500~999 4호로 나타났다. 여기서 500두이상은 춘포면 2농가, 성당면·왕궁면에 각각 1농가가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사육규모의 분포형태로 보아 전업화 추세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한 눈에 짐작할 수 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공업화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전통적인 농업군이고, 주 소득원이 농업인 익산군은 농업소득 증대없이 주민소득은 기대할 수 없다. 더우기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업생산 기반의 현대화로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익산군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경쟁 작목선택과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체작목을 발굴 확대하는 방안을 장구중이다. 이를 위하여 소득작목의 기술개발과 과적한 투자를 하는 등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입증이나 하듯 삼기농공지구 조성사업(40,000평 규모)은 농공병립사업의 거점 사업으로 전체 군민의 기대속에 착공, 익산공업화의 원년으로 기록되고 있다. 앞으로도 황등석재특별농공지구(450,000평 규모), 함열특별농공지구(400,000평 규모)도 90년과 91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

지방화시대가 도래, 양돈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셈

지방화시대를 목전에 두고 지역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중심이 여전이 농업(1차산업)인 만큼 지역농업의 발전계획을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것이 익산군의 입장인 셈이다.

양돈업도 마찬가지로여서 무엇보다

양돈생산성의 제고와 양돈농가 소득안정 및 성장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수입자유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어떻게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육성시킬 것인가. 또 생산과잉과 가격폭락에 대응하여 생산량과 출하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다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화시대가 도래하고 지방화시대가 펼쳐진다는 기대는 우리 양돈산업의 발전에도 획기적인 새로운 장(章)을 여는 셈이 된다.

이와같은 변화가 이루어지면 양돈산업발전의 책임도 양돈인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민주화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각오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제 민주화의 물결에 속에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있다. 밖으로는 개방압력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바로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속에서 이 지역의 양돈인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지금까지 겪었던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갈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성장산업으로서의 양돈업을 얼마나 확실히, 그리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느냐가 하나의 관건이 되리라고 본다. **■**